

# 마데테스



표어 : 너나 잘하세요

은석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를 위해 존재한다는 이  
한 가지 사실에만 마음을  
드립니다.



복음으로 세워지는 교회됨이  
아니라 인간이 추구하는 교회  
되기를 원하는 것을  
정제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신자로서의  
책임이 무엇인가에 대해 깊이  
고민합니다.

소리 없이 일어나는 일

신윤식

내게 소리 없이  
알게 모르게 일어나는 일 있으니  
은밀히 유혹하여 내 속 흔들며  
세상에 마음 두게 하는 거가 그러하고  
자존심 세우려  
이겨야 한다는 생각이 그러하다.  
날 죽이려 조용히 찾아드는 거다.

내게 소리 없이  
알게 모르게 일어나는 일 있으니  
하나님이 하신 일을 덮고  
내가 한 일을 내세우는 거가 그러하고  
복음은 내려놓고 배부름을 위해  
살고자 하는 생각이 그러하다  
날 죽이려 조용히 찾아드는 거다.

그래도 내게 소리 없이  
알게 모르게 일어나는 일 있으니  
더러운 내 속  
말씀으로 채워지는 거가 그러하고  
어두운 눈이 열려  
나의 죽음 보게 되는 거가 그러하다  
날 살리려 조용히 찾아드는 거다.

대한예수교장로회

## 은석교회

교회주소 : 대구광역시 북구 국우동 1113-8

홈페이지 : <http://www.onlycross.net>

☎ (교회) 421-9049 (사택) 425-9049 (핸드폰) 010-5831-9049  
(E-메일) sys5806@hanmail.net

발행인 신윤식 목사

발행일 2012.12.9

발행호수 제20권 49호

**유** 대인은 구원의 근거를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성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백성으로 택하셨고 그 들만을 구원하신다는 것이 유대인의 구원 사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오직 이스라엘에게만 하나

님의 거룩한 율법을 주셨다는 것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도 율법 아래 들어오지 않으면 구원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율법 밖에 있는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구원 밖에 있는 존재로 여기며 죄 가운데 있는 더러운 인간으로 취급을 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소위 이방인이라고 불리는 세상 사람들은 유대인의 그러한 주장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또한 나름대로 구원의 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선'입니다. 세상이 생각할 때 인간이 선하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이 아니고 율법을 실천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구원 받지 못한다는 논리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고 합니다. 세상은 신의 정의나 공평, 사랑을 선택한 인간을 대상으로 베풀어지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특정한 종교나 신에게 구원의 길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종교가 추구하고 목표로 하는 것은 인간의 선에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결국 구원의 근거를 선에 두는 것입니다. 때문에 악한 자는 지옥 보내고 선한 자를 복 받고 천국 가게 하는 것이 가장 신다운 처사이며 공평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세상이 생각하는 악과 선의 기준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도덕과 윤리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처럼 유대인과 세상이 생각하고 있는 구원 근거의 공통점과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겠습니까? 공통점은 인간에게 모든 근거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율법이 자신들을 의롭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도덕과 윤리로 의롭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의가 구원의 힘이 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단지 인간 행위의

주일오전설교  
녹 8:40-48

## 혈루증 여인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재판장의 역할을 하는 분으로 여기는 것에 지나지 않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구원에 대한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로 인해서 소위 선을 추구하는 사람은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알 수 없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과 상관없이 사는 것이 곧 멸망의 길이라는 말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구원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은 모든 기독교가 이 구동성으로 외치는 말입니다. 문제는 구원의 근거를 예수 그리스도께 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의 말인가에 대해서는 간과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이 고침 받은 이야기는 이러한 시각으로 접근해 보고자 합니다.

거라사인의 땅에서 귀신들린 사람을 고치신 예수님은 다시 갈릴리 해변의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십니다. 거라사인들은 예수님께 자신들에게서 떠나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귀신들렸던 사람이 예수님에 의해서 온전하게 고침 받은 것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불편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자신들이 키우던 돼지 떼를 예수님에 의해서 잃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귀신들린 사람이 고침 받은 일을 자신들과는 무관한 것으로 여긴 것이고, 단지 예수님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손실이 발생했다는 것만 생각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다시 돌아오시자 거라사 사람들과는 다르게 무리가 환영을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불편하게 여기고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환영하고 따르고 기다리는 무리들도 있습니다. 이것만 보면 누가 예수 편에 있는 사람인가가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교회는 분명 예수님 편에 서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믿는 무리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환영한다고 해서 그것이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무리의 환영을 받던 중에 자기 집에 와서 죽어가는 외동딸을 고쳐달라는 회당장 아이로의 부탁을 받습니다. 아마 회당장 아이로도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렸던 무리들 중의 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결국 아이로가 예수님을 기다린 이유는 딸이 죽어가는 위급한

상황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즉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서 세상에 오셨는가에 대한 문제와는 상관없이 다만 자기 문제 해결을 위해 기다린 것입니다. 그동안 예수님이 보여주신 능력에만 관심을 둔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고 환영을 했던 무리들도 아이로와 같은 이 유였을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한 거라사 사람들이나 예수님을 환영한 가버나움 무리들은 하나같이 손익 여부를 기준으로 예수님을 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손해가 된다고 생각되면 파하고 득이 된다고 생각되면 환영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신을 찾고 섬기고자 하는 이유는 이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을 찾는 것이지, 불편하고 손해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신을 찾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참된 믿음은 이러한 범위를 초월해 있습니다. 인간의 손익 여부와는 상관없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예수님만 따르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생명만을 추구하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문의 넓고 좁음을 따지지 않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로만 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생명이 아닌 다른 이유로 예수님을 찾는다면 믿음에 대해 실망할 수도 있고 낙심할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아이로의 집으로 가시는 중에 어떤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열두 해를 혈루증을 앓고 있었는데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했다고 한 것을 보면 당시 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많은 무리가 밀려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접근하며 뒤에서 옷에 손을 댍니다. 그러자 즉시 혈루증이 고쳐진 것입니다.

여인의 혈루증이 고침 받은 것은 조금은 특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주신 것을 보면 대개 고침 받기를 원하는 병자들의 요구와 함께 예수님의 직접적인 말씀과 행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 몰래 옷을 만졌고 그 결과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와 고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방법으로 병이 고침 받을 수 있는가에 의문을 둘 필요는 없습니다. 어떻게 병이 나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를 통해서 누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혈루증은 여인이 하혈을 하는 병을 말하는데 레 15:19-33절을 보면 이것은 불결한 것으로 취급되는 병이었습니다. 피의 유출이 있는 동안에는 그가 앉고 누웠던 모든 자리가 부정할 것이고, 그 자리를 만지는 사람도 부정해진다는 것이 율법입니다. 이점을 생각해 보면 이 여인은 혈루증을 앓는 12년 동안 사람을 가까이 할 수 없었고, 다른 사람들 또한 이 여인을 불결하게 취급하며 가까이 하지 않는 고통의 세월을 보내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인이 예수님의 뒤로 와서 몰래 옷을 만진 것도 사람들 앞에 뽀뽀하게 나설 수 없는 자신의 처지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유대인의 규례대로 한다면 이 여인은 이미 불결한 존재이기 때문에 구원과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와 여인의 병이 고침을 받게 된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이 옷을 만진 사람은 이 여인만이 아니었습니다.

4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라고 물으시자 베드로가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에게 많은 무리가 밀려들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 예수님의 옷을 만지게 된 사람도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가 아니라 여인에게만 예수님의 능력이 나가게 된 것입니다.

부정한 여인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고침을 받았습다. 혈루증을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인간의 부정함은 어떤 인간적 방법이나 수단으로도 해결할 수 없음을 뜻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능력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부정한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거라사인들은 예수님이 귀신들린 자를 고친 것을 목격했으면서도 그 같은 능력이 자신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귀신들리지 않은 온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예수 때문에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떠나달라고 합니다. 지금껏 자신들 스스로 잘 살아왔기 때문에 예수 없이도 생활에는 아무 지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예수님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반면에 가버나움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하고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혈루증 여인처럼 부정한 사람들

이 아니라 나름대로 온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이 자신의 부정함을 고칠 수가 있다고 생각하고 환영하고 기다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의 덕을 보고자 하는 것이었을 뿐입니다. 결국 이들도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애당초 구원과는 상관없이 예수님께 물려든 것입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밀려들어서 예수님을 만졌지만 그들에게는 능력이 나가지 않았다는 것은 자신의 부정함을 알고 예수께 나온 사람만이 그 능력 아래 있게 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앎이로다”** 라고 말씀하시자 여자가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심을 알고 떨며 나아와 엎드려 손 댄 이유와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합니다. 여인이 말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이 자신을 고쳤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부정한 자신을 깨끗하게 했다는 이 사실 외에 할 말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여인의 믿음으로 말합니다. 즉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은 예수님의 능력으로만 부정한 우리가 깨끗하게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모든 공로와 의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을 **“딸아”** 라고 호칭합니다. 성경에서 딸은 시온, 또는 예루살렘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즉 고침 받은 이 여인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진정한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21절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는 말씀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혈루증을 앓은 이 여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이고, 예수님과의 참된 관계에 속한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자신의 부정함을 알고 오직 예수님의 능력으로만 고침 받을 수 있음을 믿고 주께 나오는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신자는 자신의 수치를 간파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수치를 잊은 채 예수님을 찾는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환영하고 기다렸으나 구원의 능력에는 관심이 없는 가버나움의 사람과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

님 앞에 나오게 되면 드러나는 것은 우리의 수치, 더러움으로 인한 부끄러움 밖에 없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나의 구원의 능력되심을 믿으며 인간의 의나 선함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가치한 것인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들여다보시면 도무지 믿음이 있다고 말하기가 부끄러울 지경입니다. 마귀의 유혹으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며 내 자존심과 배부름을 위해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부끄러움을 보게 하심으로 예수님만이 구원의 능력되심을 믿게 하시는 이것이 우리를 살리기 위한 예수님의 일입니다.

.....

**만** 은 분들이 대표기  
**능** 도를 할 때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을 종종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면서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를 사(死)가 아닌 생(生)으로, 화(禍)가 아닌 복(福)으로 인도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찾는 대개의 사람들이 기대하는 하나님의 다스림이고 주관하심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는 것은 단순히 세상이 하나님의 주관아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주어지고 있으며 그 어떤 일에 대해서도 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 피조물의 입장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세계가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사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세계는 곳곳이 흔들리고 있다고

주일오후설교

시 93:1-5

하나님의  
권위

(97강 11.11일 설교)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흔들리기도 하고, 정치적인 문제로 흔들리기도 하고, 전쟁이나 내분도 끊이지 않습니다. 세계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 또한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불안과 염려 속에서 살아갑니다. 내 인생은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믿음으로 두려움이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는 것 자체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세계에 들어와 있는 것임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말하면서도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시고 거두시기도 하신다는 사실을 잊고 있습니다. 잊고 있다기보다는 그 같은 다스림 자체를 부인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읍기서를 보면 사탄이 하나님의 허락 아래 읍을 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과 자식을 잃어버린 읍이 그 소식을 듣고 한 행동은 땅에 엎드려 예배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모테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읍 1:21)라는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한 사탄이 읍을 쳐서 온 몸에 종기가 나게 함으로 읍이 재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굽는 고통을 겪고 있을 때 읍의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합니다. 읍의 아내는 주어진 그 상황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읍이 하나님을 신앙하며 하나님께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 힘을 쓴 모든 것을 보았기에 그런 읍이 당하는 재앙을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읍은 이런 아내에게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읍 2:10)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만이 아니라 화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 읍이 아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견고하고 흔들림이 없는 인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대로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는 것이고 권위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권위와 다스림을 받아들이지 않습니

다. 그들 눈에 펼쳐지는 현실이 불의와 모순으로 가득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다스림은 악한 영이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자신의 종으로 만들어 불의의 길로 이끌어 갈 때 하나님이 택한 자기 백성을 구출하여 의의 길로 가게 하시는 것에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권위이며 위대하신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을 보는 눈이 깊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만 보고 그것을 전부로 여기면서 울고 웃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권위로 다스리고 계신다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생각지 못한 삶으로 인해 고통을 겪게 된다고 해도 하나님의 심판이 더 고통스러움을 생각하게 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참으로 크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러한 깊은 믿음의 세계로 인도하기 위해 다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권위와 다스림이 어떤 방식으로 세상에 증거되기를 원하니까? 악한 자는 즉시 심판을 받고, 하나님을 믿는 신자는 20층 건물에서 추락해도 멀쩡하고, 기도를 하면 즉시 응답이 되고, 평생 병과는 상관없이 건강하게 사는 것입니까? 설사 그렇게 산다고 해도 모든 인간이 회피할 수 없는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단지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사망, 즉 멸망이라는 고통으로 이어지는 것이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의 실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같은 인간의 실상을 기준하여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위대하신 권위는 우리를 멸망에서 건지시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20층 100층 건물에서 추락해서 죽지 않는 기적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적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이것을 세상은 무시하게 여깁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 자체를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또한 무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자 된 우리는 하나님께서 권위로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증거를 봅니다.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십자가를 믿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권위로 일하시는 위대하신 일인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

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께 영원무궁하 시리이다” 고 말합니다. 시편 저자는 여호와가 스스로 권위를 입으시고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증거가 확실하다고 말합니다. 시편 저자는 무엇을 근거로 이런 말을 하는 것일까요? 분명한 것은 눈에 보이는 실증적인 것을 확실한 증거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눈으로 보고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인정할 수 있는 일을 내세워 확실한 증거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증거가 이렇게 실증적인 것으로 나타난다면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나, 다스림, 권위, 이러한 것은 우리가 실증적으로 확인하여 인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인식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하나님의 존재성을 부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다스림도 시시하게 생각합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는 오직 믿음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실증하고 확인할 수 있는 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다스림의 증거가 매우 확실하다고 고백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믿음 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자가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되면 우연이 없고 시시한 것이 없게 됩니다. 모든 것에 하나님에 의해 되 어지고 있음을 알게 되는 것이고,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는 것까지 하나님의 다스림의 증거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숨을 쉬며 살아가는 것까지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존으로 보게 되는 이것이 믿음의 시각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시각에 대해서는 아직 어둡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가는 것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는 세계로 더욱 깊이 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를 드러내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그 증거들을 시시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보면서 흔들림이 없는 견고한 세계를 살아가면 참 좋겠지만 이쉽게도 우리는 늘 흔들리고 힘들어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신다면 진심으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자 할 것입니다. 이러한 열망이 있다면 그 또한 하나님께서 권위로 다스리고 계신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하 나님께서는 선 지자 예레미야를 세워서 유다왕 여호야김의 잘못에 대해 책망을 하시는데, 그 잘못은 자신을 위해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짓기 위해 이웃을 고용했지만 품삯을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식으로 말하자면 노동자

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자신의 배만 불리는 악덕 고용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여호야김에 대해 17절에서 “그러나 네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고 말합니다. 그리고 19절에서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 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고 말한 것처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호야김의 잘못은 세상 기준에서 보면 단지 도덕적인 문제로 비춰질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세상에는 여호야김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야김의 잘못은 단순히 고용한 사람에게 품삯을 주지 않았다는 것에 국한 된 것은 아닙니다. 17절에서 언급한 대로 탐욕, 무죄한 피 흘림, 압박, 포악이 품삯을 주지 않는 행동으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여호야김의 아버지인 요시아왕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요시아왕의 그 같은 행동을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신자가 하나님을 알고 모르는 것은 가난한 자를 어떤 생각으로 대하는 가로 드러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세상에는 여호야김만이 가난한 자에게 포악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유독 유다의 왕인 여호야김에게만 시비를 거십니다. 유다를 침략하는 바벨론의 왕도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약자를 학대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바벨론의 왕에게는 선지자를 보내시지도 않고 그의 최후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왜 유독 유다를 이렇게 대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유다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세상에 나타내야 할 역할자로 세움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을 외

수요일설교  
렘 22:13-19

여호야김의  
잘못

(55강 11.14일 설교)

면하는 것인가를 유다 왕들을 다루시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방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무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방 나라라는 하나님의 내어버려두심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은 영원한 멸망이기에 이방 나라에게는 하나님의 내어버려두심이 곧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요시아가 하나님을 알았기에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변호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변호하셨음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임을 알았기 때문에 요시아 또한 그 같은 실행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아의 행동은 가난한 자에 대한 인간의 동정심과는 무관합니다. 인간의 동정심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안 앎에 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도덕이나 양심이 아니라 앎에 의한 실행인 것입니다.

레 19:9-10절을 보면 가난한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에 대해 가르칩니다. 추수할 때 곡식을 밭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라고 합니다. 이왕이면 더 많은 것을 남겨 두어서 가난한 사람이 배부르게 먹도록 하면 좋을 것인데 겨우 밭모퉁이와 떨어진 이삭을 남겨 놓으라고 말씀할까요?

하나님의 규례의 목적은 가난한 사람을 배부르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곡식을 수확함으로 풍족해진 형편에서도 자신들의 본래 위치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애굽에서의 이스라엘은 가난하고 궁핍했으며 나그네였습니다. 그들을 인도하여 약속으로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이 가난한 자를 변호하시고 도와주신 하나님의 자비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같은 하나님의 자비로 인해 가난한 땅에 머물게 된 것입니다.

이 같은 이스라엘의 본래적 모습은 재물이 많아지든 작든, 권력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재물이 많아져서 부하게 된다고 해도 그 본래적인 모습은 가난한 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재물이나 권력이 자신의 힘으로 쟁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인식할 때 가능합니다. 따라서 누구든 가난한 자를 변호한다면 그것은 자신이 소유한 모든 것의 출처가 하나님인 것을 분명히 인식하기 때문이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본래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잊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답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앎으로 인해

서 현실화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네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라고 말합니다. 여호아킴은 자신의 왕적 권위를 근사한 궁궐을 지음으로써 과시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유다에서 왕적 권위는 것처럼 외적인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그 앎이 현실화되는 삶의 길로 가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즉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하나님 되심을 자신의 삶에서 온전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며 따라서 우리의 진정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가난을 구제의 차원에서만 접근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사회봉사와 구제에 힘써야 하는 것은 옳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복지 차원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를 복지단체, 구제 기관으로 여기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사 61:1절에 보면 **“주 여호와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놓임을 선포하며”**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처럼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아름다운 소식은 가난한 자들에게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물어야 하는 것은 ‘나는 과연 가난한 자인가’ 입니다.

여호아킴의 잘못은 자신의 본질적인 모습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가 비록 왕의 자리에 앉아있긴 하지만 그것은 그가 왕의 자질이 있거나 그만큼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따라서 그는 자신의 왕 됨을 과시하는 것보다는 왕의 자리에서 나타내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에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왕이라는 사실만 생각하였기 때문에 자신을 과시하고자 하기 위해 집을 짓는 일에만 몰두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든, 어떤 위치에 있든 본질적인 모습은 무가치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손에 쥐고 있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가치 있는 존재로 바꾸지를 못합니다. 결국 가진 자나 가지지 못한 자 모두는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부요가 무엇인가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 ■ 오전예배 ■

11시 / 인도 신윤식 목사

묵상기도 : 다 함 께  
 신앙고백 : 다 함 께  
 찬 송 : 9(53)장  
 교 독 : 19(시32편)  
 기 도 : 이영민 장로  
 찬 송 : 301(460)장  
 성 경 : 눅 8:40-48  
 말 씀 : 혈루증 여인(38강)  
 기 도 : 설 교 자  
 찬 송 : 303(403)장  
 교회소식 : 이영민 장로  
 찬 송 : 2장  
 축 도 : 설 교 자

## ■ 오후예배 ■

2시 20분 / 인도 신윤식 목사

신앙고백 : 다 함 께  
 찬 송 : 304(404)장  
 기 도 : 김현동 집사  
 찬 송 : 491(543)장  
 성 경 : 시 96:1-13  
 말 씀 : 심판의 하나님(100강)  
 기 도 : 설 교 자  
 찬 송 : 322(357)장  
 주기도문 : 다 함 께

## ■ 수요일예배 ■

7시 30분 / 인도 신윤식 목사

예레미야 강해(59강)

## ■ 교회소식 ■

1. 2013년도 달력이 제작되었습니다. 한부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2. 2013년부터는 개정된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사용합니다.

●  
 다음주 기도

오전 - 조규현 장로    오후 - 박영선 집사

## 이단 ⑧

중요한 것은 교회가 이단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이다. 사실 이것은 쉽지 않은 문제다. 교단차원에서 이단에 대해 연구하고 이단으로 규정된 단체에 대해서는 쉽게 교인들에게 경계할 것을 주문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결국 개교회가 분별해야 할 문제로 주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역시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개교회가 모든 이단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교회는 신자가 어떤 이단사상에 빠진다고 해도 스스로 그것을 드러내기 전까지는 알 수 없다는 어려움이 있다. 신자 스스로 이상함을 느껴서 목사에게 문의하지 않은 이상 목사는 누가 어떤 잘못된 사상에 빠져 있는지 알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신자 스스로 이단의 가르침에 대해 방어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이것을 위해서 교회는 오직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는 일에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하는 것이다.

이단은 일반적으로 신자의 종교심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접근한다고 했는데, 과연 이단이 자극하는 이 종교심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성경은 결코 인간의 종교심을 자극하는 것으로 접근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면 이단을 분별하고 방어하기에는 어렵지 않다고 할 수 있다.

행 17:22절에 보면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텐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라는 말을 한다. 종교심이란 신을 찾고자 하는 인간의 마음을 의미한다. 그러면 사람은 왜 신을 찾을까? 그 이유는 하나 같이 신으로부터 도움을 받기 위해서다. 인간이 상상하는 신은 초월적인 능력을 가진 존재다. 그러럼 초월적인 능력의 도움을 받아서 자신이 원하는 삶을 누려보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인간이 상상하는 신은 정성에 감동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의 정성을 나타내기 위해 신에게 뭔가를 바치는 것이고, 열심히 기도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신에게 바치는 것이 있으면 신은 그것을 받고 기뻐하며 바친 자를 도와준다고 생각하는 것이 인간의 종교심에 의해 상상되어진 신인 것이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재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복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행 17:24-25)는 말을 한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특별한 전에 존재하는 분도 아니고, 또한 무엇이 부족해서 사람에게 뭔가를 받고 그것을 기뻐하는 분이 아니라고 한다. 즉 하나님은 많이 바친 사람이나 적게 바친 사람이나 전혀 차별을 두지 않으신다는 것이다. 사도는 이러한 말로 아텐 사람들에게 ‘너희가 찾는 신은 참된 하나님이 아니다’는 선언을 한 것이다.

현대 교회가 아텐 사람처럼 인간의 종교심으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상상하여 만들지 않고, 진심으로 성경 안에서 사도가 증거하는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고 그 하나님을 신자들에게 가르치기를 힘쓴다면 ‘하나님은 많이 바친 사람을 복주시고 사랑하신다’는 거짓말은 하지 않을 것이다. 바로 그것이 인간이 종교심을 자극하는 말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대개의 한국교회 신자들은 이러한 말에 너무 익숙하다. 평소 종교심을 자극하는 말을 들어왔기 때문에 종교심을 자극하는 이단의 말을 분별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